



배포 일시	2022. 8. 4.(목)		
담당 부서	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	책임자	과 장 정수호 (044-201-3988)
		담당자	서기관 황세은 (044-201-3966) 사무관 서형우 (044-201-4633) 주무관 오수정 (044-201-3984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GTX 사업자에게 공공분양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

< 보도 내용 (서울경제, 8.4(수) >

- ◆ GTX 건설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역세권 개발과 공공분양 권한 부여
 -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분양까지 혜택범위 확대

- 현재도 민자철도 사업자는 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‘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’ 상 부대사업으로 주택공급, 도시개발사업 등 역세권 개발사업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.
 - 따라서, GTX 사업자에게 별도의 개발권한을 부여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
- 다만, 국토교통부는 부대사업의 유형을 확대하고, 민간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부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,
 - 부대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민자철도의 요금을 낮춰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.